	참여후기		
성 명	노**	소속	독어독문학과
파견국가	독일		
파견대학	아우크스부르크대학		
파견 프로그램	■ 교환 □ 교비 □기초학문진흥 사업 □ 자비유학 □ 어학연수 □ 계절수업		
파견 기간	2025학년도 ■ 1학기 □ 2학기 □ 하계 □ 동계		

1. 출국 전 준비과정*(비자 발급, 항공권 구매, 보험 구매, 학기 시작일 및 종료일과 출국일과 귀국일, 픽업 서비스 이용 여부를 포함하여 **5줄** 내외로 작성해 주세요.)*

비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입력하고 신청하면 날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. 저는 1월30일에 신청해서 2월21일 인터뷰날짜 받았어요. 인터뷰 후 최종 비자는 3월13일 수령했습니다. 보험은 TK공보험 가입했고,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부산-인천-프랑크푸르트 왕복으로 14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. 정규학기 시작은 4월22일에 시작하였고 7월 말에 기말고사를 치고 종료되었습니다. 저는 여행을 위해 학기 시작과 종료 한 달 전후로 입국과 출국하였습니다.

2. 초기 정착 과정*(기숙사 비용 및 시설 소개, 수업 오리엔테이션, 버디 유무를 포함하여 **5줄** 내외로 작성해 주세요.)*

기숙사는 보증금 500유로와 한 달 328유로였고, 원룸으로 화장실 부엌 냉장고 침대 책상 옷장 모두 포함되어있었습니다. 그리고 학교 바로 앞이어서 정말 편리했어요. 학교에서 ESN이라는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잘되어 있었습니다. 정규학기 시작 일주일 전, 시티투어와 인싸이더팁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버디도 한 명씩 배정받아서 궁금한 것들을 쉽게 묻고 친해질 수 있었어요!

3. 현지 수학 내용*(이수 과목 및 수업 방식, 추천 수업과 비추천 수업(이유 포함), 수업 외 학교생활(동아리, 기타 프로그램, 추천 여부 등)을 포함하여 **10줄** 내외로 작성해 주세요.)*

저는 어학코스로 신청해서 독일어 수업만 들었습니다. 한국에서 듣는 수업보다 훨씬 스피킹 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, 현지 독일 교수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수업이 많았습니다. 어학코스로 신청을 안했더라고 독일어 수업을 하나쯤은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! 어학수업을 통해서 다른 외국친구들과도 빠르게 친해질 수 있고, 언어와 함께 독일 문화도 같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학교 정규수업 외에 동아리 같은 건 없었고, 따로 신청해서 스포츠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알파카 산책시키기를 했었는데, 색다른 경험이어서 뜻 깊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마다 ESN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짜여있어서 최대한 참여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. 제일 좋았던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직접 그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준비 한 cultural night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. 따로 여행을 못가서 느낄 수 없는 그들의 현지음식과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좋았던 거 같아요.

4. 현지 생활 내용*(주요 휴일 및 축제, 기후나 물가 등 생활환경, 파견 국내 및 국외 여행을 포함하여 **10줄** 내외로 작성해 주세요.)*

제가 지내는 여름학기 동안 Plärrer, 부활절 등 많은 공휴일이 있었습니다. Plärrer는 지역축제인제 Oktoberfest의 작은 버전으로, 독일 전통축제를 이렇게나마 경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유럽의 부활절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. 학교에서 Summerfest를 열어 학생들이 서로 다른 요리를 가져와 각국의 문화 또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. 처음에 유럽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걱정했는데, 한국과 다르게 엄청 덥지 않아서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. 학기 중 독일 교통과 여행은 도이칠란드티켓으로 이동하였습니다. 학생 할인으로 독일 안에서의 모든 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에는 주로 저가항공을 이용했는데, 다른 불편함 없이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. 독일이 유럽의 거의 중간에 위치해 주변의 다른 나라들로 이동하기 편해서 여행을 많이 갈 수 있었습니다. 유럽 내 버스와 기차가 잘되어 있어서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!! 독일에서 생활할 때에는, 외식비가 비싸고 마트의 채소물가가 비교적 저렴하여 기숙사에서 많이 요리해 먹었습니다. 독일 마트에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재료들도 많아서 이것저것 경험해보는 재미가 있었어요.

5. 귀국 준비 및 과정*(귀국 전 준비(택배 발송, 보험 해약 등), 귀국 여정(비행기 경유지 등)을 포함하여 **5줄** 내외로 작성해 주세요.)*

귀국 전, 저는 가족이 유럽에 놀러와서 다같이 한국으로 입국해서 짐 부담은 별로 없었습니다. 생각보다 기념품이나 선물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컸었어요. 기숙사 퇴실하기 전에 꼼꼼하게 청소해야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. 꼼꼼하게 청소 안하면 나중에 기숙사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신경써야 합니다. 그리고 보험도 해지하고, 주거지취소신청도 하고, 핸드폰 및 교통티켓 정기구독한 것들 모두 제대로 해지신청하고 귀국해야합니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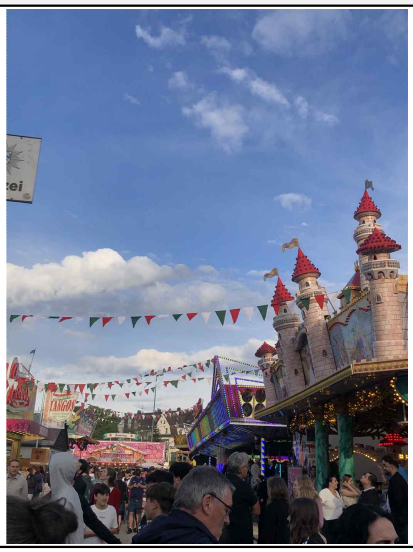
6. 자기 평가 및 건의사항*(파견 전후 학습관련 및 학습 외 자신의 변화,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**10줄** 내외로 작성해 주세요.)*

파견 전에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지만, 막상 도착해 보니 괜한 걱정이었고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너무 경계가 풀어지면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, 조금의 긴장감은 유지하는 것도 필요할거 같아요! 교환학생 이전에는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망설여졌지만, 한 학기 동안 외국 친구들과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적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. 또한 교환학생 가기 전 저의 전공실력을 늘리고 싶었는데, 독일 현지에서 직접 전공 수업을 듣고 독일어로 발표도 하며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번 경험은 학문적으로나 개인적인 성장 모든 방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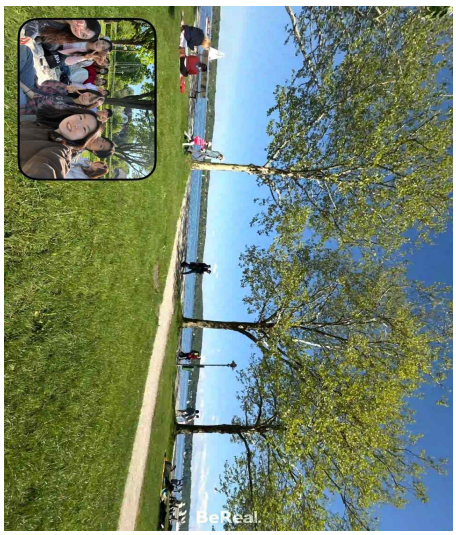
7. 기타*(사전준비, 현지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느꼈던 점 등 앞으로 독일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**10줄** 내외로 작성해 주세요.)*

출국 전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꽤나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, 출국 최소 몇 달 전부터 여유를 두고 꼼꼼하게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비자, 보험, 기숙사와 같은 행정적인 부분은 처리 기간이 예상보다 길 수 있으니 꼭 미리 시작하시길 추천합니다. 그리고 교환학생 기간 동안 여행을 계획한다면, 단순히 일정만 짜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나라에서 여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이나 주의해야할 점이나 위험한 장소 같은 것들을 미리 조금이라도 알고 가면 훨씬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. 교환하면서 하루하루가 한국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에,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후회 없이 최대한으로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현지 친구들과의 교류 기회는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세요. 해외여행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, 교환학생으로서 현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경험은 다시 오기 힘든 특별한 기회이니, 후회 없이 마음껏 즐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!!!

8. 현지 사진 *(본인 또는 친구들과 같이 찍은 인물 사진 위주로 **4장 이상** 첨부해 주세요.)*



2025.04. 아우크스부르크, 독일 전통축제 Plärre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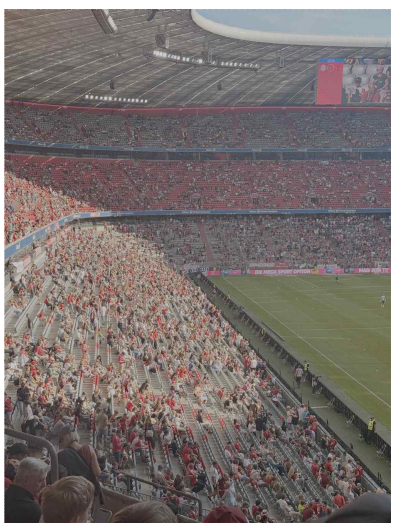
2025.05. 뮌헨, 친구들과 같이 Sternberg 호수에서 피크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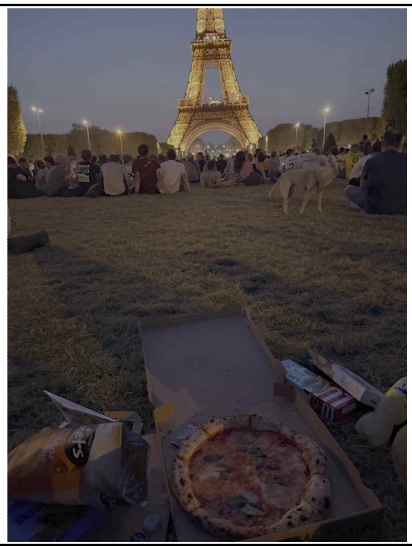
2025.06. 아우크스부르크, Sports Class에서 알파카와 산책하기



2025.07. 아우크스부르크, 학교 마지막 Farewell Party



2025. 08. 뮌헨, 바이에른FC뮌헨vs토트넘 경기 직관!!



2025.08. 프랑스 파리, 에펠탑 앞에서 피크닉

+ 사진과 관련하여 파견 당시 느꼈던 점을 아래에 5줄 내외로 설명해 주세요.

파견 전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, 독일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. 하루하루가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었기에, 개인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